

‘빨리빨리’의 후유증



김진환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은
불러봤을 동요의 한 구절이다. 이는 1950-60년대 사회
전반의 실정을 대변한 구절이었다. 당시에는 가장
빠른 것의 상징이 ‘비행기’였고, 가장 높은 것은 ‘백두산’
이었다.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이 노래를 쉽게 이해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우주 시대라 불리는 작금의 21세기에서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 후보 중 하나는
‘전기’다. 전기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光速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실 이 광속보다 더 빠른 게 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대체 무엇일까? 바로 ‘한국인의
급한 성격’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급한 성격은 계절
과도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 과거 농경시대에는
날씨에 따라 농사가 판가름 났다. ‘봄’에 물이 있어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때를 맞추어 서두르지
않으면 김매기나 파종을 할 수 없었다. 또 가을걷이
도 마찬가지였다. 햇볕이 잘 드는 날을 기다렸다가,
빨리 추수를 하고 빨리 말려서 빨리 날라야 했다.

어찌하든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민족의
농사 방법이었다.

여기서 문제는 환경이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 습성이나 기질도 변화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산업현장에 전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늦은 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꼴찌에게는
기회도 잘 주지 않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빨리빨리
문화를 고착시키는 촉진제가 됐다.

그 결과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일도 빨리 해야
되며, 심부름운동 등 뭐든지 빨리만 해야 되는 사회가
바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버렸다. 오죽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뜻의 ‘시간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지금 사회에선 빨리빨리 일하라
는 뜻으로 변해 쓰이고 있다.

인력과 간소한 소도구가 중심이었던 농경사회
에서야 빠른 작업 중 사고가 나도 그 피해가 국한적이
었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피해를
불러온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급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는 급한 성격만
해소시키면 대한민국의 산업제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지금부터 우리 국민 모두는 “내
급한 성격만 고쳐도 예상치 못한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조금은 느려도 확실
하게 일을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